

“초반부터 밀리면 안돼”...탈꼴찌 경쟁 뜨거운 야구장

초반 하위권 팀, 분위기 회복·승차 좁히기 어려워
나성범 등 이탈·팀 타선 침체 KIA, 10위로 밀려나

경기 수가 많이 쌓이지 않은 시즌 초반이라도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나면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 출발부터 무거워진 분위기를 회복하는 건 물론이고 벌어지기 시작한 격차를 좁히는 것도 '과제'가 된다.

초반부터 탈꼴찌 경쟁이 뜨겁게 벌어지는 이유다.

17일 현재 최하위에 머무는 팀은 3승8패에 그친 KIA 타이거즈다.

나성범, 김도영 등의 이탈로 타선이 힘을 잃은 KIA는 팀 타율이 0.238(10위)까지 떨어졌

다. 마운드도 평균자책점 4.25(6위)로 강하지 않다보니 상대팀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어렵다.

4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팀 순위도 10위까지 내려앉았다. 1위를 지키고 있는 SSG 랜더스와 승차도 어느덧 4.5게임 차로 벌어졌다.

최근 3년 연속 10위를 벗어나지 못한 한화 이글스는 올해도 개막 후 가장 오래 최하위를 지켰다. 그러나 지난주 3승1무2패로 버티면서 9위(4승1무8패)로 한 계단 올라섰다.

올 시즌 한화는 이전보다 끈끈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지만, 결정적 상황에서 무너지는 경기가 반복되는 게 가장 큰 약점이다. 개막전 이후 부상으로 쉬고 있는 외국인 투수 버치 스미스의 공백도 크다.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2경기 연속 승리를 맞보지 못할 만큼 좋은 흐름을 잊지 못한다는 것도 승수 쌓기에 발목을 잡고 있다.

8위 삼성 라이온즈(5승8패)는 시즌 초반부터 6연패에 빠지면서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시즌 3번째 경기였던 4일 한화전 승리 때만 해도 2승1패로 공동 선두로 올라섰지만 이후 긴 연패가 덮치면서 공동 최하위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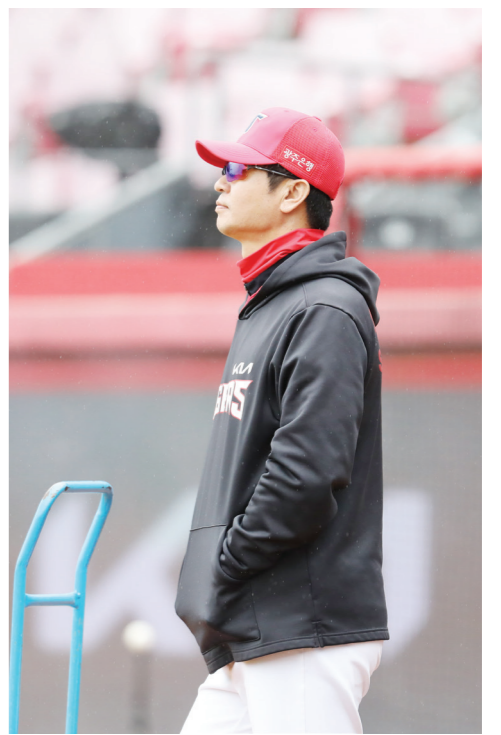
다행히 타선이 살아나면서 분위기도 회복됐다. 6연패를 끊은 뒤엔 3승1패로 선전하면서 8위까지 올라섰다.

롯데 자이언츠도 아직 흐름을 타지 못한 채 7위(5승7패)에 머물고 있다. 10위 KIA와는 1.5게임 차다.

팀 타율 3위(0.271), 득점권 타율 3위(0.316)의 방망이를 앞세우고 있는 롯데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 투수들이다.

지난해 함께했던 찰리 반즈, 댄 스트레일리과 재계약은 했지만 반즈는 2경기 1패 평균자책점 10.80, 스트레일리는 3경기 2패 평균자책점 5.74로 고전하고 있다.

롯데가 원했던 외인 투수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순위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어질 수 있다.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 (사진=KIA 제공)

뉴스스

‘女 싱글 간판’ 김예림 “피겨 장군” 생소했지만 지금은 마음에 들어요”

피겨 팀 트로피서 장난감 칼 세리머니...프리 3위 오르며 은메달 힘 보태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인 김예림(20·단국대)의 별명은 ‘피겨 장군’이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얻은 별명이다.

당시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민트색 계열의 하늘하늘한 의상을 입고 우아한 연기를 선보인 김예림은 경기를 마치고 관중들에게 인사한 뒤 박력 넘치는 걸음으로 빙판을 빠져나왔다. 장군처럼 걸음걸이가 당당했다고 해서 피겨 팬들은 ‘피겨 장군’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김예림은 베이징올림픽에서 별명을 전해듣고는 “다른 건 없을까요?”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인 모습이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막을 내린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월드 팀 트로피에서 한국 피겨 대표팀은 키스앤드크라이 존에서 각자의 캐릭터를 살려 세리머니를 펼쳤다. ‘피겨 장군’ 김예림은 장난감 칼을 들고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김예림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깔깔 웃은 뒤 “베이징올림픽에서 피겨 장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너무 생소한 단어라 낯설었다.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하지만 모든 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은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한국 피겨 대표팀은 이번 팀 트로피에서 한국에서 쟁쟁한 소용돌이를 열었던 은메달을 펼쳤다.

‘베약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해인(18·세화고)은 병아리 인형을 들고 포즈를 취했고, 선수들도 노란색 옷을 입고 응원했다. 차준환(22·고려대)은 ‘피겨 왕자’라는 별명이 있는 것을 고려해 왕관을 쓰고 점수를 확인했다.

김예림은 “키스앤드크라이 존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을 남겼다. 하지만 그 뒤에 장작의 고통을 느끼기도 했다”면서 “세리머니에 대한 아이디어는 내가 많이 냈고, 그 외의 부분은 캡틴(차준환)이 많이 리드했다”고 소개했다.

김예림은 팀 트로피에서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마치고는 ‘피겨 장군’ 답지 않게 눈물을 쏟아냈다.

최근 부진으로 인한 마음고생을 털어낼 수 있는 연기를 펼친 뒤 흐른 눈물이다.

김예림은 지난해 11월 2022~2023시즌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5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녀 싱글을 통틀어 한국 선수가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2009년 11월 2009~2010시즌 그랑프리 5차 대회의 김연아 이후 13년 만의 일이었다.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에도 성공했다. 한국 여자 싱글 선수의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 또한 2009~2010시즌의 김연아 이후 13년 만이었다.

다만 김예림은 그랑프리 파이널에서는 6명 중 최하위에 머물러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김예림은 올해 2월 열린 4대륙선수권대회에서는 이해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은메달을 따긴 했지만 쇼트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가 프리스케이팅에서 동생 이해인에 역전을 허용해 아쉬움이 남았다.

지난달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아쉬움은 더욱 컸다. 이해인과 함께 입상 기대를 받았지만, 174.30점이라는 저조한 점수로 18위에 머물렀다.

이번 팀 트로피에서도 김예림은 쇼트프로그램에서 점프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62.65점으로 12명 중 7위에 그쳤다.

하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는 달랐다. 트리플 러츠-트리플 투르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언더로테이션(under rotated·점프 회전수가 90도 이상 180도 이하로 모자라는 경우) 판정이 나왔지만 나머지 요소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저지르지 않았다. 143.59점을 받아 3위에 오르면서 한국의 은메달 획득에 힘을 더했다.

김예림은 “이번 시즌 초반에 성적이 좋아 시즌 후반까지 욕심이 컸는데, 세계선수권 이후로 충격이 컸다. 많이 속상했다”며 “그래서 팀 트로피를 준비할 때도 마음이 쉽게 잡히지 않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그는 “프리스케이팅을 하기 전에도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였다. 크게 욕심을 가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오자는 생각을 했다”며 “다행히 열심히 연습한 것이 마지막 경기에서 나왔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서 감격을 받아 눈물이 나왔다.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돌아봤다.

처음 출전한 팀 트로피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한국 피겨의 동계올림픽 팀 이벤트(단체전) 진출에 대한 기대도 생긴 상황이다.

김예림은 “처음 출전한 팀 트로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우리가 할 일을 묵묵히 한다면 올림픽에서도 이번처럼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선수들끼리 나눴다”고 역시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연경 노렸던 페퍼, 박정아 잡았다...중위권 도약 이끌까

김연경 잔류에 감독 박정아 지목
세터 이고은·리베로 오지영 호흡

프로배구 여자부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차지한 박정아를 영입했다. 전력을 보강한 페퍼저축은행이 중위권까지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페퍼저축은행은 자유계약(FA)선수로 풀린 박정아와 계약기간 3년에 총 보수 7억7500만원(연봉 4억7500만원·옵션 3억원)에 계약했다.

7억7500만원은 여자부 보수 상한선이다. 박정아는 지난 16일 흥국생명과 7억7500만원에 계약하고 잔류한 배우여자 김연경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박정아와 김연경의 운명이 엮일린 모양새다. 당초 페퍼는 FA시장에서 김연경을 영입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찬 전 감독이 흥국생명에서 경질된 후 김연경이 구단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자 페퍼는 김연경 영입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희망을 품기도 했다.

이후 튀르키예 시절 김연경과 호흡을 맞췄던 아본단자 감독이 흥국생명에 부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김연경은 아본단자 감독의 설득으로 잔류했다.

김연경이 FA 협상에 관한 인터뷰에서 우승할 수 있는 팀을 조건으로 내건 점 역시 페퍼로서는 아쉬운 대목이었다.

대신 페퍼는 박정아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다. 다음 시즌부터 팀을 이끌 미국 출신 아헨



김 페퍼 감독이 박정아를 영입 대상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헨 김 감독은 박정아에게 직접 편지를 쓰기도 했다.

우승 경험이 풍부한 박정아는 경험이 부족한 페퍼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박정아는 IBK기업은행에서 3년 우승을 견인했다. 한국도로공사 시절 첫 해인 2017~2018시즌 팀을 정상에 올려놓고 직전 시즌에는 김연경이 버티는 흥국생명을 누르고 챔피언 우승을 차지했다.

박정아 영입을 통해 페퍼는 윙스파이커 박정아를 축으로 이고은 세터, 리베로 오지영까지 만만찮은 진용을 갖추게 됐다. 팀 주포였던 이한비가 잔류했고 채선아까지 아웃사이드히터 포지션에 보강됐다.

다음달 외국인 선수 트리아아웃을 통해 즉

시 전력감을 확보한다면 페퍼의 중위권 도약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1~2022시즌 막판 3연패, 2022~2023시즌 개막 후 17연패를 당하며 굴욕을 맛봤던 페퍼는 2021~2022시즌 3승28패 2022~2023시즌 5승31패에 그쳤다.

다만 직전 시즌 막바지에는 오지영 합류 후 전력이 향상되면서 우승팀 도로공사를 비롯해 현대건설, GS칼텍스, IBK기업은행을 이겨냈다. 특히 우승팀 도로공사에는 2승4패를 거두는 등 상대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였다.

이제 박정아를 등에 업은 페퍼가 다음 시즌 중위권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서선욱기자



프로축구 대전 이진현, K리그1 7라운드 MVP 선정

프로축구 대전하나시시티즌 미드필더 이진현이 하나원큐 K리그1 2023 7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과 울산 현대의 경기에서 1골을 넣어 대전의 2-1 승리를 이끈 이진현을 7라운드 MVP로 뽑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경기에서 이진현은 선발로 나와 전반 9분 이현식의 패스를 받아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진현의 활약에 개막 6연승을 달리던 선두 울산의 질주가 멈춰섰다.

베스트매치는 광주FC가 난타전 끝에 대구 FC를 4-3으로 이긴 경기가 뽑혔다.

7라운드 베스트11 공격수에는 라스(수원FC)와 산드로(광주)가 올랐다.

미드필더에는 이진현과 함께 헤이스(제주), 윤빛가람(수원FC), 제르소(인천)가, 수비수는 두현석(광주), 김민덕(대전), 김동민(인천), 이현식이 자리했다. 골키퍼는 이창근(대전)이다.

K리그2 7라운드 MVP는 루이스(김포)가 선정됐다. 루이스의 활약으로 김포FC가 안산그리너스를 3-2로 누른 경기는 베스트매치가 됐고, 김전상무는 베스트 팀에 올랐다.

손흥민 주급 3억4000만원 토트넘 내 케인 이어 두번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토트넘)이 주급으로 21만 파운드(약 3억4000만원)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언론 ‘데일리메일’은 17일(한국시간) EPL 20개 구단의 구단별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를 3명씩 소개했다. ‘일부는 정확하지 않은 근사한 주급’이라고 전제를 삼았다.

이에 따르면, 손흥민은 주급으로 21만 파운드를 받는다. 연봉으로 보면 약 177억원 수준이다.

토트넘 구단 내에선 해리 케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주급이다. 케인은 30만 파운드(약 4억9000만원)를 받는다. 베테랑 이반 페리시치가 18만 파운드(약 2억9000만원)로 구단 내에서 손흥민의 뒤를 잇는다.

EPL 선수 중 최고 주급을 받는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수 엘링 홀란이다.

무려 86만5000파운드(약 14억원)를 받는다. 매체는 “홀란은 기본 38만5000파운드에 추가 보너스료로 인해 90만 파운드에 육박한 주급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즌 맨체스터 시티를 통해 EPL에 데뷔한 홀란은 리그에서 32골 5도움으로 압도적인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다.